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11期(2026.10.09) WWW.MINGHUI.ORG

한글판 1075호 minghui.or.kr



▲ 9월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공 당수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질 때, 파룬궁수련자들은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사이의 해군기념관 앞에서 중공의 파룬궁 박해 및 중국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9월 28일, 미국 상원은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

【해 외】 '파룬궁 보호법', 3대 의회 거쳐 역사적 진전 이뤄

【해 외】 미국 법무부, 국적 포기 소송 제기... 피고인 40명에 중공~

【수 련】 자신의 근본 집착을 알아가기까지의 마음 여정

〈목 차〉

■ 해외종합

‘파룬궁 보호법’, 3대 의회 거쳐 역사적 진전 이뤄	3
미국 법무부, 국적 포기 소송 제기… 피고인 40명에 중국공산당 대 리인 포함	6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9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4
---------------------------------	----

■ 수련교류

자신의 근본 집착을 똑똑히 인식하게 된 마음의 여정	16
법을 첫 자리에 두고 ‘고통’에서 벗어나다	24
신념의 비약	31
두려운 마음을 없애는 것에 대해 다시 논하다	42
한 배를 타고	49
법공부의 중요성	56
정법이 최후에 이르렀는데 기회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	65

■ 시사평론

그들은 왜 파룬궁수련자를 지지하는가? 5대 핵심 고려사항과 직접적 인 접촉	69
--	----

■ 문화예술

‘타인과 자신, 친한 이와 원수를 평등하게 대함’에 관해	74
---------------------------------------	----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룬궁 보호법’, 3대 의회 거쳐 역사적 진전 이뤄

[명혜망](정연 기자) 현지 시간 2026년 9월 28일, 미국 연방 상원은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 법안(S.4009 — 119th Congress: 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을 만장일치로 공식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특히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 행위)를 겨냥한 특별 입법이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음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 의원이 올해 3월에 발의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총 11명의 상원의원으로부터 공동 지지를 받았다. 법안은 장기적출에 가담했거나 이를 인지한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입국 거부 및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된다.

‘파룬궁 보호법’의 입법 과정은 미국 양대 주요 정당의 수십 명의 의원들이 오랫동안 기울인 노력이 응집된 결과다. 주요 전개 맥락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12월 1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소속 스콧 페리(Rep. Scott Perry) 하원의원이 제117대 의회에 ‘파룬궁 보호법(H.R. 6319 — 117th Congress: 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총 19명의 공동 발의자가 참여했는데, 그중 18명은 공화당 소속이고 1명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 2023년 6월 14일, 스콧 페리 하원의원이 제118대 의회에 ‘파룬궁 보호법(H.R.4132 — 118th Congress: 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다시 발의했다.

· 2024년 6월 25일, 연방 하원이 ‘파룬궁 보호법(H.R.4132)’을 통과시켰다.

· 2024년 7월 31일, 당시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Sen. Marco Rubio) 상원의원이 발의자로서 제118대 의회에 ‘파룬궁 보호법(S.4914 — 118th Congress: 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6명의 공화당 소속 공동 발의자가 참여했다. 이 법안의 발의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관련 상원 버전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 2025년 2월 24일, 스콧 페리 하원의원이 ‘파룬궁 보호법(H.R.1540 — 119th Congress: Falun Gong Protection Act)’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후 차례로 12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그중 10명은 공화당 소속이고 2명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 2025년 5월 5일, 연방 하원이 ‘파룬궁 보호법(H.R. 1540)’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이전 버전은 각각 H.R.4132(118th)와 H.R.6319(117th)였다.

· 2026년 3월 5일,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S.4009 — 119th Congress: 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11명 상원의원의 지지를 얻었으며, 그중 6명은 공화당

소속이고 5명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 2026년 9월 28일,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 (S.4009)’이 연방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3대 의회를 거친 이후의 입법 절차에는 여전히 양원 협의와 대통령 서명 발효가 남아 있다. 즉 양원이 최종적으로 동일한 텍스트를 확인한 후, 법안은 공식적으로 백악관에 송부된다.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키거나, 의회 회기 내에 기한이 지날 때까지 거부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비로소 정식으로 미국 연방 법률이 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파룬궁 보호법’이 발의돼 상원을 통과하기까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선택과 의지에 대한 시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다. 페리 하원의원과 크루즈 상원의원의 정의감과 끈질긴 노력, 공동 발의자로서 이 법안 추진에 참여한 수십 명의 양당 연방 의원들, 그리고 이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서명한 모든 미국 시민들은 팻 라이언(Pat Ryan) 연방 하원의원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한 말을 증명해 줬다.

“(미국 의회) 양당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파룬궁수련자들의 신앙 실천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민이 파룬궁수련자들과 함께 서 있으며, 신앙과 자유의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 국적 포기 소송 제기... 피고인 40명에 중국공산당 대리인 포함

[명혜지창]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미국 법무부는 여러 연방지방법원에서 미국으로 귀화한 시민 40명을 상대로 국적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 살인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중국공산당 대리인 역할을 하고 파룬궁을 감시한 리핑이 포함됩니다(자세한 내용: ‘미 법무부 40명 국적 취소 예정, 중국공산당 대리인 리핑 포함’).

중국 출신 조상 두 명이 명단에 포함됨

법무부가 발표한 40명 명단에는 조상 고향이 중국인 귀화 미국 시민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명혜망이 보도한 바 있는 리핑(Ping Li)으로, 현재 61세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미국 법무부는 플로리다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핑의 미국 귀화 시민권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리핑이 미국 법무장관의 사전 통보 없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리핑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취한 관련 행위가 당시 그가 미국 헌법의 원칙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법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격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법에 따라 귀화 시민 신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대량 국적 박탈 소송 개요

이 소송들은 2026년 8월 21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잇달아 제기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 재임 기간 중 단일 시기에 제기된 규모가 가장 큰 시민권 박탈 철회 소송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귀화 시민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귀화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해당 미국 시민권이 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며 귀화 증명서도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장관 토드 블랜치(Todd Blanche)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귀화 취소 절차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 민사국 차관보 브렛 슈매트(Brett A. Shumate)는 이 사건들의 피고인들이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기만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무부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은폐 또는 허위 진술로 인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건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법무부의 대규모 국적 박탈 소송 제기는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미 귀화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법에 따라 국적이 박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미국에서 반체제 인사와 파룬궁 수련자 정보를 수집하며 대리 활동을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는 경고와 억제 효과를 갖습니다.

【리핑 형사 사건 배경】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출신 미국 시민 리핑이 수년간 중국공산당에 미국 파룬궁 수련생, 반체제 인사 및 미국 단체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미국 법무부는 리핑에 대한 형사 기소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2024년 8월 23일, 리핑은 미국 법무장관의 통보 없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며 죄를 자백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리핑은 2012년부터 중국공산당 국가안전부(MSS) 관리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요청에 따라, 그는 파룬궁 관련 인물들의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파룬궁 내용을 집필한 두 명의 책 저자 정보와 중국공산당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앞 시위에 참여한 파룬궁 수련자 한 명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보에는 해당 수련생의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자동차 브랜드와 모델이 포함됩니다. 명혜망은 앞서 리핑이 중국공산당 국가안전 인력에게 미국 변호사 한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변호사는 파룬궁 관련 출판물에 글을 쓴 바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추가로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응했습니다.

2014년 말, 리핑은 중국으로 가 이 중국공산당 국가안전부 관계자와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1월, 리핑은 중국공산당 대리인 역할을 하려는 공모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25만 달러, 그리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10월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파룬궁수련자들은 샌타클래라 챔피언 퍼레이드에 초청받아 참가해 관람객들의 환영을 받았다. 파룬궁수련자 대열은 미 서부 천국악단, 연공팀, 요고팀으로 구성돼 진용이 장관이었고 활력이 넘쳤다. 시의원 캐런 하디는 행사 현장에서 파룬궁 단체의 참가에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그들은 우리 커뮤니티의 모든 아름다운 부분을 보여주었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시장 리사 길모어는 파룬궁수련자들의 시 퍼레이드 참가를 환영했다. 파룬궁 단체의 성대한 진용이 전체 커뮤니티에 그 조직의 풍모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으며,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것의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수련자들이 퍼레이드에 가져온 풍성한 색채, 뜨거운 분위기와 훌륭한 시연에 극찬을 보냈으며, 특히 파룬궁수련자들의 적극적인 참가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9월 27일 일요일 오후, 스웨덴 파룬궁수련자들은 구시가지 왕궁 옆 화폐 광장에서 진상 알리기 및 서명 행사를 개최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끊임없이 행인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대면하여 진상을 알렸다. 아일랜드에서 온 3명의 젊은이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와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 진상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중공이 ‘진선인(眞·善·忍)’을 신앙하는 단체에 대한 박해를 27년간 지속해 왔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특히 놀랐다. 그들은 중국 시민들의 처지에 깊은 동정을 표했다.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진상 전파를

돕고 서명을 통해 박해 종식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3명의 젊은이는 박해 종식을 위해 힘을 보탬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동시에 그들은 각국 언론이 박해 진상을 후속 보도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박해 종식을 도울 수 있기를 촉구했다. 몰타에서 온 두 명의 관광객은 진상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박해받는 파룬궁수련자들을 매우 동정하는 동시에 파룬궁수련자들이 대중에게 중공의 폭정을 폭로하고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를 폭로하는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남성이 감탄하며 말했다. “여러분이 용감하게 나서서 이 반인륜적 범죄를 대중에게 폭로하는 것은 하늘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량함을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의미 있고 존경스럽습니다.”

9월 27일, 네덜란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시청 앞에서 행사를 열고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및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으며, 중국에서 파룬궁이 겪고 있는 박해 상황을 알렸다. 은은한 음악과 부드러운 연공 동작은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언론인 루이스 이파스(Louis Ypas)는 패널에 전시된 파룬궁수련자들이 고문받는 사진을 진지하게 촬영하며 말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은 정말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진선인(眞·善·忍)’은 매우 좋은 가치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하고 타인에게 동정심을 가져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9월13일~ 26일, 우크라이나 수련자들은 각기 루츠크(Lutsk)와 흐멜니츠키(Khmelnytskyi)의 시 기념일 행사에 참가해 파룬궁 공법을 시연하고 가르쳤으며, 시민들에게 중국에서 파룬궁이

박해받고 있는 진상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했다. 한 여성은 자신이 기공 수련 방법을 계속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쁘게 파룬따파 자료를 받았고, 파룬따파의 주요 저서인 《전법륜(轉法輪)》을 구매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루츠크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파룬따파 단체 연공 행사에 꼭 참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루츠크에서 온 파룬따파 수련자 바딤(Vadim)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자신의 신체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됐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자신을 다잡으면서 생활 속의 각종 갈등과 충돌에 더욱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만약 모든 사람이 파룬따파의 ‘진선인’ 원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모두 큰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2026년 여름, 불가리아 파룬궁수련자들은 관광 성수기를 이용해 반스코, 고르나오라호비차, 바르나에서 ‘진선인 국제미술전’을 개최했다. 세 곳의 전시회는 각각 현지 박물관, 전시관, 방송 센터에서 열렸으며, 예술 애호가, 학자, 관광객들의 방문을 이끌어냈고 현지 문화 기관 및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일부 관람객들은 전시회가 현지 문화생활에 새로운 내용을 더해줬다고 말했다. 그들은 작품의 회화 기법과 예술적 표현력에 찬사를 보냈고, 작품에서 생명, 선(善), 박해 등 주제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꼈다.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선인 국제미술전’이 불가리아 국영 라디오 방송국 바르나 라디오 센터 전시관에 전시됐다. 현지 악투알노, 체르노모레 등 언론이 바르나의 전시회에 대해 보도했다.

8월 15일과 9월 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파룬따파수련자들은 사르예르(Sarıyer) 타라비야 해변(Tarabya Seaside)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시민들은 현장에서 공법을 체험하고 파룬궁을 알아

봤으며, 중국의 파룬궁수련자들이 겪고 있는 박해 상황을 알고 나서 청원서에 서명해 박해 종식을 촉구한 사람들도 있었다. 유치원 교사 세브기 이페클리(Sevgi İpekli)는 아이들과 함께 네 가지 공법을 배웠다. 연공이 끝난 후 그녀는 말했다. “이 공법은 정말 훌륭하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공법이 평온하고 부드러워 정말 마음에 듭니다.” 보험회사 직원 멜템 카스카(Meltem Kaska)도 공법을 체험했다. 그녀는 말했다. “몸이 아주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으니 몸이 점차 이완되고 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가부좌를 아주 좋아해 집에서 가끔 눈을 감고 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곤 합니다. 이 가부좌 공법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이 겪는 박해 상황을 알게 된 카스카는 말했다. “저는 어느 나라에서든 모든 사람이 자신을 기분 좋게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공법을 자유롭게 수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좌가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면, 제게는 가부좌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9월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DP 원더러스 스타디움에서 유방암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연례 자선 행사 ‘핑크 데이’가 열렸다. 당일 수천 명의 팬이 경기장을 찾아 남아공과 호주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관람했다. 남아공 파룬따파수련자들도 경기장을 찾아 이 공익 활동을 지지했다. 수련자들은 관중에게 핑크색 연꽃 장식품을 선물했는데, 장식품에는 파룬따파의 원칙인 ‘진선인’이 새겨져 있었다. 파룬따파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관중에게 수련자들은 이 심신 수련법을 소개했다. 건축 기술자 르네시아는 파룬궁수련자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르네시아는 파룬따파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량함을 전달하도록 주창

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암과 같은 인생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가족과 친지의 선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풍요롭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선량함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타인에게 사랑과 배려를 전해야 합니다.”

9월 27일과 10월 4일, 일본 히로시마 시내에서 잇따라 ‘히로시마 국제 축제(World Festa Hiroshima)’와 ‘평화와 우애 축제(“PEACE&LOVE” Festival)’가 열렸다. 히로시마 파룬궁수련자들은 두 행사에 참가해 부스에서 파룬궁을 소개하고 공법교습을 했으며, 무대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교류했다. 상황을 알아보러 온 몇몇 시민은 중국에서 파룬궁이 겪고 있는 박해 상황을 듣고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전직 공무원이자 현역 테니스 코치인 리키젠(力善)은 올해 84세다. 그녀는 파룬궁 부스 앞에 와서 파룬궁수련자의 소개를 들은 후 말했다. “파룬궁은 정말 좋군요. 불안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진선인’에 따라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 그녀는 또 근처 연공장(煉功場)에 가서 공을 배울 것이며, 그렇게 하면 자신이 더 젊어지고 활력이 넘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허베이성 한단시 파룬궁수련자 두리쿤(杜麗鋤·42세)은 2025년 2월 19일 심야에 남편 마융샤오(馬永驍), 어머니 양펑롄(楊鳳蓮)과 함께 한단시 공안국 한산분국 및 푸둥 파출소, 뤼청터우 파출소 소속 20여 명의 경찰에게 강제로 가택에 침입당해 납치됐다. 두리쿤은 수개월간 불법적으로 감금됐다가 9월 14일 취保候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두리쿤 모녀는 지속해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부서에 고소 자료를 제출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를 고발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사법 당국의 보복을 받았다. 2026년 9월, 한단시 페이샹구 법원은 두리쿤에게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했다.

지린성 창춘시 파룬궁수련자 쉬옌화(徐顏華)는 2023년 다시 징웨구 차이위대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구치소로 끌려가 불법 감금됐다. 2023년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지린성 여자 감옥에서 박해를 받았다. 2026년 9월, 그녀는 장기간의 고문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지정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며, 향년 74세였다. 감옥 측은 줄곧 소식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지린성 쓰핑시 파룬궁수련자 장사오핑(張紹平)은 2019년 8월 15일에 납치돼 감금됐고, 2020년 9월 28일에 리수현 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으며, 2021년 2월 26일에 불법적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온갖 고문을 겪었다. 그녀는 2026년 8월 14일에 출옥했지만, 불과 40일 만인 9월 24일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60세가량이다. 장사오핑을 포함해 납치돼 모함을 받은 14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은 7~9년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55세였던 푸구이화는 수감된 지 두 달도 안 돼 박해로 사망했다.

자신의 근본 집착을 똑똑히 인식하게 된 마음의 여정

글/ 독일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오늘 저는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저의 근본 집착을 찾아낸 마음의 여정을 수련생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중병을 앓아 줄곧 약을 먹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매일 한약을 먹었고 대학에 다닐 때도 약을 먹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여전히 약을 먹었습니다. 이후 저는 독일에 와서 대학에서 독일어를 공부했는데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위장병에 걸렸고, 병이 학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1996년 2월 어느 날, 저는 부모님이 중국에서 보내주신 ‘전법륜(轉法輪)’과 공법교습 비디오테이프를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단숨에 이 책을 다 읽은 후 마음속이 한없이 벅차올랐고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 왜 병이 생기는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등 수많은 이치를 단번에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사부님의 공법교습 비디오테이프를 따라 다섯 가지 공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룬궁 수련에 들어섰습니다.

매일 연공하고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는데 2주 후 배가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약 먹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독일인인데 불행하게도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파룬궁을 연공한 지 불과 2주 만에 병이 기적처럼 나은 것을 보고 기공을 믿지 않던 남편도 저를 따라 연공을 배우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영어판 ‘전법륜’을 읽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독일어 번역본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남편의 몸도 눈에 띄게 좋아져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 우리는 반(反)박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000년 6월 16일 사부님께서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走向圓滿)’를 발표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해 스위스에서 행사에 참가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온 수련생들이 모여 이 경문에 대한 이해를 교류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모두 자신이 대법에 들어설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 근본 집착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병을 고치려고 들어왔지만 2주 후에 병이 완전히 나았으므로 아예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시간은 한 해 또 한 해 흘러갔고 우리는 여전히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줄곧 건강했지만 남편의 몸은 해마다 나빠져 나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기력을 들여 그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2016년 9월 어느 날 남편은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깊은 고통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구세력이 우리에게 어떤 안배를 했는지, 우리의

어떤 허점을 파고들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2017년 9월 저는 프랑크푸르트로 이사해 일과 대법 항목에 전념하게 됐고, 구세력이 저와 남편을 어떻게 교란했는지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마음 써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현상이 끊임없이 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속한 팀에 심각한 병업 고비를 겪는 수련생이 여러 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비를 넘기는 상황은 남편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팀 수련생들에게 제가 자꾸 수련생들이 병업 겪는 일을 마주치는데 이는 분명 저와 관계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나다

시간은 2026년 초가 됐고 어느덧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생활한 지도 8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수련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프랑크푸르트 팀에서 최근 2년 사이 병업 형태로 세상을 떠난 두 수련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수련생은 일찍이 그녀들에게 자신의 근본 집착을 찾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녀들은 모두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수련생은 이것이 그녀들이 세상을 떠난 근본 원인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수련생에게서 영감을 얻어 우리 팀 수련생들은 근본 집착 찾는 일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근본 집착을 발견한 수련생들이 끊임없이 나와 모두와 진솔하게 교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역시 저의 근본 집착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처음에 대법의 문에 들어섰을 때 병을 고치려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법이 남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에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저는 구세력이 어떻게 저와 남편을 교란했는지 등 문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저의 인식을 이야기 하려 합니다.

근본 집착을 없애지 못해 생명의 근본적인 변화를 저해하다

저는 위장병을 고치려고 대법에 들어섰는데 신기하게도 수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병을 앓고 있던 남편에게도 와서 연공하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저는 대법이 반드시 그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고 처음부터 이 생각에 상당히 집착했지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이러한 강렬한 집착 속에서 온갖 집착 섞인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남편이 연공하는 것을 도왔는데 그가 손을 들어 올리지 못해 포륜(抱輪)을 할 수 없으면 그의 두 팔을 받쳐주고 포륜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의 손이 정말로 올라가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나중에 책을 읽을 수 없게 되자 저는 그가 끊임없이 법을 듣게 하려고 녹음과 비디오를 틀어주었습니다. 그가 잠들었을지라도 사부님의 법이 그의 주원신(主元神)에게는 여전히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어떤 방식이 남편에게 도움이 될지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반복해서 외웠고 오랫동안 정념(正念)을 발했으며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선해(善解)의 법으로 남편을 교란하는 생명을 선해해주었고 그와 함께 안으로 찾기도 했습니다. 각종 노력을 하는 동시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남

편의 병이 호전되기를 기대했고 그의 병이 나으면 대법을 힘 있게 실증할 수 있다는 구실로 병을 고치려는 마음을 덮어 감췄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마음을 저도 인식했고 그것을 없애려고 애썼지만 당시 저는 그것이 저의 근본 집착이라는 것을 절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제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출발점이 바르지 않다고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이것이 그의 근본 집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실증하는 것도 수련이다. 수련하는 과정은 바로 부단히 자신의 부족을 인식함으로써 부족을 없애버리는 과정이다. 다만, 가장 근본적인 집착은 일찍 많이 인식할수록 좋을 뿐이다. 인식하게 된 자체가 바로 제고이다. 그것을 없앨 수 있거나 극복하고 약화시켜 최후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과정이 바로 부단히 제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생명의 근본적인 전변인 것이다.”(각지 설법4-2003년 애틀랜타 법회 설법)

저는 지금 사부님의 이 단락 설법을 공부할 때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시 모두 우리의 근본 집착이 무엇인지 똑똑히 인식하지 못했기에 남편 생명의 근본적인 변화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세력이 내 근본 집착을 붙잡고 놓지 않으며 박해를 가중하다

남편이 장기간 병마의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제 기력도 거기에 얹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병업 문제가 아니라 구세력의 심각한 교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구세력이 왜 우리를 교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교란을 타파해야 하는지 줄곧 명

백히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사부님의 구세력에 관한 설법을 한 번 또 한 번 공부했는데 알 듯 말 듯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업력이 커서 구세력이 이를 이용해 남편의 병마 상태에서도 나와 남편이 여전히 대법을 믿고 사부님을 믿는지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저와 남편은 대법과 사부님에 대해 모두 매우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특히 남편은 장기간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신념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에게 이처럼 확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 사부님께서서는 줄곧 그를 보호해주셨고 그에게 몇 차례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깨어났습니다. 1주일 후 의사는 저에게 남편이 이제 몇 달 밖에 살지 못하며 길어야 반년이라고 말했고, 남편이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병원에 남아있기를 권했습니다. 의사는 만약 집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의료 장비가 없어서 제때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진지하게 생각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의 상황은 정말 호전됐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의사가 걱정했던 위험이 나타난 적이 없었으며 게다가 그는 4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사악한 사람을 통제하여 사람의 일체 마음, 일체 집착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빠짐없이 와해(瓦解) 식으로 대법(大法)과 제자를 검증하고 있다. 만약 당신들이 진정하게 수련 중에서 사람의 그러한 근본 집착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면 최후의 이 한 차례 마난(魔難)은 이렇듯 사악하지 않을 것이다.”(정진요지2-원만을 향해 나아가자)

지금에야 저는 비로소 명백히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근본 집착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남편 자신에게 존재하는 문제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구세력은 끝없이 남편에게 손을 써서 조금씩 그의 육신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남편이 장기간 병마의 교란을 받게 하는 것을 통해 온갖 방법으로 저 역시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이토록 심각하고 사악했습니다.

근본 집착을 없애고 사부님께서 안내하신 길을 걷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구세력은 끊임없이 저에게 고난을 가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차 제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은 이런 병이 나타나고 내일은 저런 병이 나타나는 등 하나하나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이는 저를 매우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후 제 위장에 20여 년 전과 같은 병 증상이 나타났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해졌고 두려움의 물질이 증가했으며 주변 수련생들이 병업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오싹함을 느꼈고 제 수련에 무슨 문제가 생겼기에 위장에 병 증상을 일으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저는 어떤 상황이든 정념을 발하는 힘을 키우고 ‘그것은 병이 아니라 가상(假象)이다’라는 일념을 확고히 다졌으며 점차 저는 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근본 집착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세력은 끊임없이 제게 병이라는 가상을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대법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근본 집착을 여전히 짊어지고 놓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저는 왜 제가 프랑크푸르

트에서 늘 수련생들이 병업 고비를 겪는 문제에 부딪히는지 해답을 찾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구세력이 저의 근본 집착을 틀어진 후, 이를 이용해 저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고 제가 수련하는 의지를 꺾어 수련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매 한 가지 집착은 모두 당신을 수련 성취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매 한 가지 집착은 모두 당신의 신체에 상황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으며, 대법에 대한 견정한 신념에 동요를 조성할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누구도 당신들을 수련 성취하게 할 생각이 없으며 또한 누구도 당신들이 수련한 것이 어떠한지 고려하지 않는다. 구세력은 오로지 그것들이 완성하고자 하는 것을 완성하려 할 뿐인데, 단지 이뿐이다.”(각지 설법13-2015년 미국서부법회 설법)

이제 다시 몸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저는 두려운 마음 없이 단호하게 그것들을 부정합니다. 예전에 제게 구세력은 모호하고 종잡을 수 없는 추상적인 존재였지만 지금 저는 그것의 수법을 간파하고 조기에 그 사악한 안배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자신의 근본 집착을 똑똑히 인식함에 따라, 사부님의 각지 설법을 다시 읽을 때 저는 사부님께서 수많은 설법에서 우리에게 근본 집착을 제거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일깨워주셨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토록 여러 해 동안 미혹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구세력이 안배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2026년 6월 8일 명혜편집부에서 ‘통고’를 발표해 진정으로 수련하는 대법제자들에게 사부님의 경문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를 외울 것을 건의했습니다. 저는 이 경문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로 절실히 깨달았으며, 오직 근본 집착을 없애야만 구

세력의 안배를 철저히 부정할 수 있고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교류 내용 중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유럽 법회 원고)

법을 첫 자리에 두고 ‘고통’에서 벗어나다

글/ 프랑스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황잉(黃穎)이며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1996년에 법을 얻어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선원(神韻) 보도 과정에서 ‘고통’은 줄곧 제게 가장 깊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고통을 거부하면서 생겨난 두려움은 다음 해 보도에 다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었고, 저는 줄곧 부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맴돌며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느낌이 없어졌으며, 처음으로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다고 느꼈고 마침내 저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 아주 간단했는데,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기고 오로지 다른 사람이 잘되기만을 바란 것이었습니다.

1.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기다

지난해 선원 보도 후반기에 저는 속인 직장 일을 병행할 수 없어서 매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했습니다. 비록 속인 상사가 거둬만류했고 저도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두 가지를 정말 다 해낼 수 없었고, 심신이 몹시 지쳐 사직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제가 수련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인 직장과 대법 항목을 병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초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간 것은 주로그 명성을 동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사 후 저의 명예욕과 금전욕, 허영심, 그리고 동료들 간의 비교와 경쟁 때문에 직장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매일, 심지어 주말에도 야근을 해야 했기에 심신의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상사도 제가 주말에 선원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선택을 알았으며 ‘허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퇴사했기에 사직 후 실업수당 같은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선원 보도가 끝난 후 저는 이후의 생활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속인 직장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집을 팔고 물가가 싼 작은 마을로 이사해 이후로는 더 이상 직장을 구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 것인가?’ 당시 저는 심신이 몹시 지쳐 있었고 다음 해 선원 보도 때 속인 직장과 병행할 수 있을지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반년마다 직장을 바꾸고 남은 반년은 선원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며 결코 장기적인 대책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시골 집값을 알아보면서 한편으론 구인광고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직장을 구할 때는 먼저 급여를 보고 지금보다 월급이 높은 일자리만 찾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급여를 우선시하지 않고 일의 내용을 먼저 보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근무 시간 내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서 선원 보도를 병행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양쪽 모두에 책임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 처음으로 저는 구직 시 이력서를 딱 5곳만 넣었는데, 제가 정말로 잘 해낼 수 있는 5개의 일자리였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명예와 이익이라는 기점에 서지 않고,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며 자신감이 있고 진정으로 회사에 떳떳한 이력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월급이 얼마든 다 받아들이고 흥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력서를 낸 후 저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냈고 여행 중에 면접 통보를 받았으며 일주일 후 채용되었습니다. 이 일자리 구인광고에 제시된 급여는 제가 이전에 받던 것보다 꽤 낮았지만, 채용 확정 통보를 받았을 때 제시된 급여는 예전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후 제가 비교적 익숙한 분야였기에 몇 달 안에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터득했고 업무 스트레스도 없었으며 야근도 할 필요가 없어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제 상사가 1월부터 인력이 매우 부족한 다른 부서로 저를 발령하겠다고 했는데 그곳은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사람의 계산이 하늘의 뜻만 못하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다시 엄습했습니다. 새로운 직무로 바뀔 때마다 초기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이것이 마침 선원 보도 시간과 겹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마 또 사직해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제 기분은 극도로 안 좋았고 가부좌를 하는 중에도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식 중에 갑자기 제 근본적인 집착이 바로 극도의 안일함, 즉 육체적, 정신적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며 안일심을 제거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정념이 솟아났고 자신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으며,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고, 이 안일심을 제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든든해졌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불확실한 요소에 태연하게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사부님께 맡기고 순리에 따랐습니다.

수련인의 정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어진 모든 일은 아주 신묘했는데, 새로운 직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전혀 어렵지 않았고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반대로 이번 직무 변경 기간의 인수인계와 마무리 작업은 제가 업무 성과 면에서 질적인 도약을 이루게 해줘, 마치 ‘죽을 고비에 처한 뒤에야 비로소 살길이 생긴다(置之死地而後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 직무보다 더욱 여유로워졌고 마음은 갈수록 평온해지고 담담해졌으며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부님께서 ‘각지 설법10-에포크 타임스 회의 설법’에서 말씀하신 이 단락의 법과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어려움을 크게 볼수록, 일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상유심생(相由心生)이라, 그 일은 더욱 번거롭게 될 것이다. 상유심생은 또 이런 한 층의 뜻이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높게 놓고, 자신을 작게 놓았기 때문이다. 그 일을 별 것 아닌 것으로 보고, 사람을 구도하는 이처럼 큰일을, 당신들이 해야 할 바를 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좀 착실히 하고, 무슨 그다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과 그다

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마주치거나 듣게 되더라도 마음에 두지 말며,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라. 사악의 교란을 받지 말고 그것에 이끌리지 말라. 그런 좋지 못한 요소가 자신에게서 생기지 않으면 사악은 보잘것없어지고, 당신들 자신은 높고 크며, 정념이 족해질 것이다. 정말로 모두 이러하다.”

2.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다

선원 보도는 한 개인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며 전체 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올해 저희 NTD TV 기자팀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고 다른 파트에도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했습니다. 보도 기간에 다방면의 스트레스와 강도 높은 업무량 때문에 현장에 있는 팀은 숙박 조건 등의 영향까지 받아 자주 폭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불가피하게 약간의 마찰, 원망, 서로 못마땅해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제가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을 마주치더라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이 좋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그를 위하며, 겹겹의 질투심을 모두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견지하자 마치 제 자신이 이 우주와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았고 많은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됐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이어 2명의 기자가 가정이나 직장 문제로 원래 계획대로 일부 도시의 보도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자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본래 제가 가서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차표를 예매하려던 순간 갑자기 ‘이것이 가장 좋은 안배일까?’라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선원 보도에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는 또 다

른 신입 기사를 떠올렸는데, 그가 가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았고 신인에게 단련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어보자 그는 아주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기자도 업무 때문에 두 도시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입 기자가 자연스럽게 이 두 공백을 다시 메우게 돼, 원래 까다로웠던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점이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에만 있다면 마음이 아주 태연하고 흥가분해지며, 많은 일도 그다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이 사부님께서 다 안배해 놓으셨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몇 년 동안 저는 가슴이 아주 답답하고 마치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물질과 정신은 정말 일성(一性)입니다! 제 마음은 갈수록 가벼워졌습니다. 수련은 참으로 오묘해 집착을 제거하지 않으면 고비가 갈수록 커져서 더욱 넘기기 어렵지만, 반대로 한 고비를 잘 넘기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일들이 단번에 풀렸습니다.

3. 자아를 내려놓고 법에 책임지다

NTD TV 선원 보도 외에도 저는 줄곧 선원 홍보 영상 제작을 맡아왔습니다. 매년 보도가 끝나자마자 다음 해 공연이 시작될 때까지 관객 반응 영상과 각종 광고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선원 공연 횟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홍보 영상에 대한 수요량도 갈수록 커졌습니다. 몇 년 전, 광고 홍보를 담당하는 수련생이 저에게 모든 광고 소스를 다른 수련생에게 백업해 줘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소스가 제 한 사람 손에만 있으면 안 되며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겨

서 선원 광고를 지체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메시지를 보았을 때 마음이 몹시 씹쓸했고 수련생이 제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십여 년간 누적된 영상 소스는 저 자신도 매번 찾을 때마다 머리가 아팠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으며 외장 하드만 7~8개나 됐습니다. 이런 인수인계는 매우 복잡한데 이것이 어찌 저를 도와주는 것이겠습니까? 반대로 제 업무량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스를 정리하는 시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시간은 본래 뺄뻣했던 제 시간에 설상가상이 될 것이라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냉정을 되찾고 수련생의 메시지를 다시 보니 사실 아주 이치에 맞았습니다. 속인 회사에서도 이렇게 운영되니 이것은 확실히 법에 책임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전의 온갖 짜증은 모두 저의 기점에 서서 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을 수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제자로서 대법을 수호하는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짜증 내지 않고 태연하게 직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사직한 후 마침 한 달의 공백기가 생겨서 마침내 이 십여 년간의 영상 소스를 잘 정리해 템플릿으로 만들었고 이 부분의 일을 다른 사람이 저를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역시 그 속에서 혜택을 보았는데, 기본적으로 더 이상 그 7~8개의 외장 하드에서 소스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참여하는 모든 선원 작업은 기본적으로 저를 대체할 사람이 생겼고 저는 더 이상 그 ‘유일한 사람’이 아니게 됐습니다. 제 마음은 갈수록 가벼워졌고 자기 실증에서 조금씩 벗어났으며 자아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제거했습니다.

맺음말

올해의 선원 보도에서 사부님께서는 다른 수련생들이 어떻게 수고로움을 대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없이 간단하고, 단순하며,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100% 사부님을 믿으며,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는 저 자신도 더욱 단순하고 여유로워지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시즌 선원 보도를 거치며 자신이 갈수록 깨끗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년 선원 보도에서는 제가 진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터뷰 대상과 유쾌한 대화를 나누며, 선원이 관객에게 가져다준 기쁨을 이어가고 전체 팀과 함께 법에서 공동으로 제고하기를 희망합니다.

(2026년 유럽법회 원고)

신념의 비약

글/ 이탈리아 서양인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심득교류 글을 쓸 수 있게 돼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유럽법회에 참가했을 때 다른 수련생들의 교류를 들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때로는 감동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줄곧 다른 사람과 나눌 만큼 충분히 흥미로운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으로 찾다 보니 그제야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 매우 이기적이며 제가 줄곧 삶을 대하던 이기적인 방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략 2005년 무렵 몇몇 룸메이트를 통해 처음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접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는 곧바로 관심을 보였고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12년 6월 10일, 바로 우리가 결혼하던 그날이 돼서야 아내에게 함께 ‘전법륜(轉法輪)’을 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몇 달 안에 건강하지 못한 습관과 기호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법공부가 제게 가져다준 이로움은 신체보다 성격적인 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제 몸은 언제나 매우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의 많은 행동을 다른 각도에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행동이 아주 정상적이고 심지어 장점이라고까지 여겼지만 이제는 그 이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토록 소중한 지침을 찾았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줄곧 정신적인 길을 찾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이 믿는 종교는 대중을 위해 설계됐으므로 진정으로 저와 제 내면의 느낌을 이끌어 줄 수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처음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계속 이어나가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저는 진정으로 저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오랜 세월 속인 사회에서 생활하며 쌓아온 한 층의 검은 물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장애를 돌파할 수 있게 되자 법을 읽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함과 온전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 역시 진상을 알리는 몇몇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혹시나 말을 잘못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대법에서 멀어지게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고 사부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점차 깨닫게 됐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라고 요구하셨고 이는 모든 대법제자가 지닌 소중한 사명입니다.

선원 항목에서 수련하다

처음 선원 공연을 관람했을 때 저는 아직 수련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선원이 저희가 사는 피렌체에 와서 두 차례 공연을 했는데 아내가 홍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표가 아직 다 팔리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공연을 볼 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던 모습도 기억하고 그 공연이 제게 안겨준 큰 충격도 기억합니다. 공연 내내 저는 마치 머나먼 나라로 이끌려가 찬란했던 과거와 눈부신 문명을 발견하는 듯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선원이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공연한 도시는 이탈리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밀라노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곳 사람들이 이런 공연을 더 쉽게 감상할 수 있을 거라 고려했습니다. 저도 그 공연들의 홍보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표를 판매하고, 극장을 가득 채우며, 사흘 연속 공연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수련한 지 얼마 안 된 제자였지만 다른 수련생들이 당시 보여준 모습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은 훗날 제가 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항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2015년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움투성이었던 것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당시 딸은 겨우 한 살을 조금 넘겼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의 확고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가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장을 입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정장 차림을 최대한 피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극장과 기업 행사에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장을 입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단체 법공부가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했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도 내려놓았습니다.

한번은 밀라노 공연에서 객석 보안 업무를 맡았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공연단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더니 저를 서둘러 무대 뒤로 데려갔습니다. 공연이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무대 뒤는 캄캄했고 파란 조명 몇 개와 빨간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달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임무였습니다. 무대 중앙의 장막 뒤에 서서 천막 하나를 들어 올려 연기가 중앙의 열린 틈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객들이 곧 보게 될 놀라운 장면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듣기에는 간단했지만 문제는 제가 당시 바로 무대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뒤에서는 배우들이 발정념을 하고 있었고 앞에는 수백 명의 관객이 입장해 대화를 나누며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케

스트라에서 징이 울리면 저는 재빨리 연기를 뚫고 무대 옆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지만 강력한 힘이 저를 지탱해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여러 해 동안 제가 점차 익숙해지게 된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저는 줄곧 이 항목에 참여하며 안일함,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개인적 이익에 대한 집착과 끊임 없이 마주했습니다.

2018년 저는 고향 피렌체에서 무대 뒤 업무를 책임져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쯤 저는 이런 요청이 사실상 ‘가서 하라’는 뜻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보기에는 두려울수록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제고도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여러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교훈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배치받았을 때 그 의미를 언제나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일이 왜 그렇게 전개되는지 처음부터 바로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대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자주 저지르던 실수는 사람의 관념으로 일을 분석하고 처리하려 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우리는 그저 정진하며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미리 다 계획해 둘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준비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항목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2018년 저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선원 무대 뒤 업무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힘든 순간에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중 하나는 제작팀 구성원들이 보여준 비범한 선량함이었습니다. 일정이 극도로 빠듯했고 극장 여건도 공연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장애까지 직면해야 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경험은 심지어 어느 정도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날 밤 꿈속에서 누군가 미국식 억양으로 제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엄청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용어가 가득하고 저에게는 익숙하지도 않은 외국어 환경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맞춰나가야 했으며, 동시에 하역, 무대 설치, 리허설, 무대 철거 및 상차를 포함해 공연과 관련된 대량의 업무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공연 전날 밤에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48시간이 지나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극도의 피로와 행복감 속에서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발버둥은 사실 제 안의 여러 집착과 겨룬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집착들은 당시보다 훨씬 미약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탈리아 각지에서 열린 많은 선원 공연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기술 전문용어들도 점차 익숙해졌고 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명망 높은 몇몇 극장에서 일할 수 있는 행운도 얻었으며, 비록 아

주 미미한 힘이나마 보탬을 뿐이지만 공연의 성공에 동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손으로 직접 무언가 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이 업무는 자연스레 제게 아주 잘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점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목수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형과 함께 조부모님과 아버지를 지켜보며 목조 구조물을 세우고 다른 여러 물건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후 외국에서 한동안 생활하며 필요한 영어를 익힌 덕분에 공연단원들과도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네’라고 대답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예정된 길 속에서 점차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선원은 제 수련과 제고에 더없이 비범한 기회입니다. 선원은 끊임없이 제 집착을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 제가 세운 서약을 이행하고 사부님의 정법을 도울 수 있는 지극히 귀중한 기회도 줍니다. 오늘 돌이켜보면 초기에 끊임없이 불평했던 순간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제 오만함과 이기심을 드러내 줍니다.

저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던 일이 기억납니다. 또한 공연단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줬는지도 기억합니다.

2020년 중공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제게는 매우 특별한 시기였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스스로 제고할 기회가 가득했습니다.

그해 이탈리아 순회공연의 일부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티켓 판매팀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렷하게 기억

합니다. 그들은 관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환불이나 티켓 교환을 처리해야 했으며 이런 변화로 인해 관객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많은 관객이 자신의 티켓을 꼭 간직한 채 기다렸고 2022년 봄이 돼서야 마침내 공연이 재개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극장 공연 시즌이 대개 3월에 끝나지만 그해 순회공연은 5월에 시작하도록 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극장 내부의 높은 온도를 걱정했습니다. 많은 공연장에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렌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원은 원래 5일부터 29일까지 그곳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기온은 섭씨 30도를 넘었는데 봄철치고는 유난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객석 온도를 낮추려고 냉방 장비를 대여했지만 위층 스탠드에 앉아 있던 많은 관객은 1막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가 이미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홍보 단계에서 저는 종종 항목에서 우리 수련인의 주된 목표는 표를 파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표가 다 팔리고 나면 이제 마음을 폭 놓아도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된 경험은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 줬습니다.

개인 수련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제게 가장 큰 시련은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고 이런 집착은 직장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용주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에게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순회공연이 5~6월 사이에 진행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곧바로 제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매일 가족과 함께 사부님의 법상 앞에서 함께 외우던 사부님의 설법이 생각났습니다.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고,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다(難忍能忍, 難行能行).’(전법륜)

일을 할 수 없게 되니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였습니다. 제 집착이 폭로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많을수록 일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발정념으로 자신의 공간장을 청리한 이후 저는 고용주를 찾아가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가 공연이나 대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청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약속했습니다. 돌아온 이후 반드시 초과 근무를 통해 빠진 근무 시간을 보충하겠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순회공연을 일찍 마치고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그들은 흔쾌히 제가 다녀오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하지만 형과 제 가족, 그리고 아내의 가족과 소통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아내도 이번 순회공연에 참가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는 어린아이가 있었고 모두가 우리집의 경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순회공연에 참가하는 동안 원래는 부모님께서 저희 딸을 돌봐주시도록 계획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본래 부모님이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었으나 두 분은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셨습니다. 몇 차례 격렬한 토론을 거친 후 저는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더 잘 헤아리며 더욱 자비롭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순회공연의 일부에만 참가하면 어떨까? 번갈아 집에 남아 딸을 돌보면 어떨까? 저는 그 해답을 반드시 법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한 번 신념의 비약을 이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딸을 가족에게 맡겨 돌보게 하고 순회공연 전 일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순회공연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모든 공연이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찬 것은 처음이었고 사람들은 이 비범한 공연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공연 시즌 역시 봄에 시작됐지만 전년도보다 몇 달 앞당겨졌습니다. 일정安排의 제약 때문에 과거의 겨울 공연 시즌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저는 처리해야 할 제 일이 있었음에도 눈을 감고 더욱 긴 순회공연에 제 자신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갈수록 인정받는 이 공연의 일원이 될 수 있어 더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순회공연 과정에서 선원 단원들, 즉 무용수와 오케스트라 음악가들과 함께 일하는 느낌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공간

캡슐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또 다른 차원을 지니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생구도였습니다.

오늘날 선원의 이탈리아 순회공연은 이미 매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저 개인의 경험 외에도 저는 이것이 저처럼 이 항목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온 수많은 수련인 덕분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뛰어 들었습니다. 업무량은 언제나 아주 많았고 교란 역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국제사회에서 선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중공 사악 세력이 진상을 덮으려 시도하는 행위 역시 폭로되고 있습니다.

정법시기 대법제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사명을 갈수록 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의 경험을 돌아보면 선원 항목에 참여한 것이 제게 얼마나 커다란 이로움을 가져다줬는지 지금 갈수록 분명하게 보입니다. 거듭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저는 제 심성을 성공적으로 제고했고 만나는 사람들과 더욱 명확하게 소통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제 경제 상황 역시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제 일상 업무에서도 저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부님의 도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사부님께서 줄곧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선원의 그 믿기 힘들 만큼 훌륭한 예술가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젊으면서도 그토록 확고해서 제게 거대한 격려를 줬습니다. 우리는 좌절과

실패도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더욱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새로운 시련이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니다. 용감하게 마주하고 온 마음을 다해 뛰어들어 그 장애들을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그 어떤 작은 고통도 하나의 집착이 제거되는 과정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 따르는 보답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상은 저의 개인적인 수련 체득입니다. 만약 그중에 법에 부합하지 않는 인식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유럽 파룬따파 법회 원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는 것에 대해 다시 논하다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명혜망] 어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없애는 것과 안전에 주의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는데, 이는 옳지 않다. ‘안전에 주의하는 것’은 우리가 수련하는 길에서 이성과 지혜가 체현된 것이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는 것’은 집착을 없애는 것이지 결코 수련을 비이성적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두려운 마음

이 없어야 사악을 더 잘 떨게 할 수 있고 세인을 더 잘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개념은 전혀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일부 수련인은 두려운 마음에 가로막혀 수련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잘하려 하지 않아 수련이 제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2년 동안에도 여전히 나타난 대규모 박해 사건은 일부 수련생의 두려운 마음을 가중시켰다. 두려운 마음은 수련인에게 생사를 가르는 고비다. 이는 수련생의 제고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세인이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두려운 마음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 나는 다른 각도에서 수련생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하며, 몇 가지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교류해 보고 싶다.

1. 원래의 우리는 어디로 갔는가?

1999년 ‘7·20’,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전면적으로 격화된 이후, 사악은 하늘과 땅을 뒤덮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우리를 단숨에 집어삼키려는 기세였다. 사악이 내건 구호 역시 당시 그들이 얼마나 창궐했는지를 증명한다. 그들은 ‘3개월 안에 파룬궁을 소멸한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났고 30개월, 300개월도 지났다. 하지만 파룬궁은 여전히 우뚝 서 있으며, 게다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널리 전해졌다. 정법의 형세는 누구도 역전시킬 수 없고 뒤흔들 수도 없는데,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중공이 말하는 ‘사람이 하늘과 싸운다’는 것은 그저 웃음거리일 뿐이다.

마의 그림자가 겹겹이 드리우고 초목마저 모두 사악해 보일지라도, 사악이 한바탕 교란과 괴롭힘을 잇달아 일으키고, 잠복과 미행, 도청과 감시, 가족 이용, 진상을 모르는 세인 이용 등 온갖 음흉하고 악랄한 수법과 고문 박해를 다 썼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하지 못했다. 잇따라 수많은 대법제자가 베이징으로 가서 법을 실증하고 대법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그 기간은 수년이나 지속됐다. 두려웠는가? 두렵지 않았다. 그렇다. 두려웠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이는 정념정행으로 곧장 기차를 타고 갔고, 어떤 이는 현지 사악의 포위와 추격, 차단에 막혔지만 지혜롭게 노선을 바꿔 무사히 도착했으며, 어떤 이는 걸어서 베이징에 가느라 몇 켄레의 신발 밑창이 다 닳았다. 심지어 어떤 이는 유서를 남겨 자신의 뜻을 밝히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목숨을 걸고 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다.

20여 년이 지났다. 정법 노정이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사악한 요소는 갈수록 약하게 깔여 나갔고, 사악한 공간은 갈수록 압축됐으며, 사악한 생명도 갈수록 적어졌다. 이와 반대로 우리 일부의 모습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실망스러운데, 두드러지는 표현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2. 사악이 정말 그렇게 강대한가?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박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버려 뒹아하겠는가? 그들이 악행을 멈춘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첫째로 두려워서 문밖을 나서지 못하고, 둘째로 혼비백산할까 봐 두려워하

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용히 한마디 묻겠다. 사악이 정말 당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대한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법보다 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무리 사악해도, 정(正)이 사(邪)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이 정말 그렇게 강대하다면, 어째서 파룬궁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중공 악당은 오히려 무너지고 멸망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그렇게 강대하다면, 어째서 우리를 마주할 때 여전히 3~5명씩 짝을 짓고 7~8명씩 무리를 지어 위세를 부리며 스스로 기를 북돋워야 하는가? 어째서 우리가 사사로움을 버리고 대의를 취하는 것을 마주할 때면 경찰조차 숙연해져 엄지를 치켜 세우겠는가? 어째서 우리의 정의로운 말을 마주할 때면 그들은 우물쭈물하고 얼버무리며 이치가 궁해 할 말을 잃는가? 어째서 우리 명혜망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때 개인적으로 내려달라고 먼저 요청하겠는가? 어째서 가족, 친지, 친구들의 권고를 마주할 때면 그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는가?

예로부터 사람은 신에 대해 경외심을 지녀야 했고, 수련하는 사람은 모두 신령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치에 어긋난다. 이치에 어긋나고 말에 어긋나니, 행동도 어긋나게 마련이다. 떳떳하지 못한 자는 마음이 허하고, 마음이 허한 자는 일을 할 때 겉으로 떠받쳐 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결국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다.

3. 우리의 현재 의지로 힘든 싸움을 치를 수 있는가?

수십 년의 시련을 거치면서, 확실히 많은 수련생이 각기 다른 정도로 제고됐다. 정진하는 이는 여전히 정진하지만, 안일한 이는

여전히 안일하고, 두려운 마음이 무거운 이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무겁다. 두드러진 점은 일부 수련생의 의지력이 줄어들고 소모되며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일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낫고, 일이 적은 것보다 아예 없는 것이 낫다’는 속인의 마음가짐을 가져 우리가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중대한 임무를 짊어지고 있음을 완전히 잊었다. 어떤 이는 일이 생기면 피하고 양보하며 다른 사람에게 미뤄 위험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사심을 드러낸다. 어떤 이는 주도성이 부족해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누가 말하면 그제야 조금 하면서 대충 얼버무린다. 어떤 이는 행동력이 떨어지고 실행력이 낮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을 모레로 미룬다. 어떤 이는 심지어 자신이 가장 잘하는 항목조차 내키는 대로 하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어떤 이는 지나치게 안전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른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법공부가 형식에 치우치고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며, 법공부를 마친 후 심득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뒷말을 하며 잡담을 늘어놓는다. 어떤 이는 심지어 휴대폰을 법공부 팀에 가져가 기꺼이 사악의 ‘눈과 귀’ 노릇을 한다. 어떤 이는 발정념을 중시하지 않아 전 세계 동시 발정념 시간에 자주 외출해 일을 보거나 수련생을 찾아감으로써, 자신도 발정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련생까지 교란한다.

의지력의 변화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는 자기 자신이 점차 나태하고 안일해진다는 것이다. 나태함은 마성을 기르고 안일함은 두려운 마음을 낳는다.

바람이 불어 풀만 흔들려도 사람 마음이 흔들리고, 사악이 문만 두드려도 두려운 마음이 솟구치며, 수련생이 박해받기만 해도 긴장하고 당황한다. 나쁜 소식만 들려오면 감히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하고, 감히 수련생을 만나러 가지도 못하며, 수련생이 오는 것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 피하거나 도망친다. 이런 상태와 마음이 짐으로 우리가 힘든 싸움을 치를 수 있겠는가? 모두 아시다시피 박해의 마수가 해외로 뻗치는 것은 하나의 힘든 싸움이고, 최근 명혜망 이메일이 사악한 해커의 공격을 받은 것도 힘든 싸움이다. 중국 대법제자 중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몇 차례의 힘든 싸움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정념하고 있는가? 게다가 중국은 마굴에 처해 사악을 직접 대면해야 하므로 곳곳이 힘든 싸움인데, 자신부터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4. 두려운 마음은 일찍 없애는 것이 좋은가, 늦게 없애는 것이 좋은가?

답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하다. 사실 두려운 마음뿐만 아니라 수련인 앞에 놓인 집착심은 당연히 일찍 없애는 것이 좋다.

그렇게 간단하고 대답하기 쉬워 보이는 문제를 왜 다시 제기할까? 수련생들과 접촉하다 보면 어떤 수련생은 줄곧 그 마음을 없앤다고 말하지만, 20여 년을 말해놓고도 여전히 말하고 있고, 20여 년을 없애놓고도 여전히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두려운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사악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 그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완전히 사람의 상태다. 속인은 배후에 마가 있는 사람을 상대할 수 없으며 당신은 기세에서 이미 졌다. 하지만 우리는 이치를 갖춘 쪽이고, 게다가 하늘의 이치를 갖추고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지 못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양심에 찔릴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마치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보이는가, 참 이상하지 않은가?

위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단지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누군가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악의 광범위한 박해든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든, 이것은 구세력이 만들어 놓은 기제(機制)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다. 와서 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는 것이지, 무얼 두려워하는가? 무엇이 떳떳하지 못한가?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는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런 상태를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한 가지 일깨워 주자면, 두려운 마음을 없애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역시 하나의 사람 마음이다.

법 속으로 돌아와야만 비로소 이 ‘두려움’을 똑똑히 볼 수 있다. 먼저 질문하고, 이후 법공부를 하며, 법 속에서 답을 찾아보라. 사부님의 수많은 설법에서는 아주 명백히 우리에게 구세력은 인정받지 못하며, 사악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제한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우리의 일념이 법 위에 있는가 사람 위에 있는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부님의 법을 생각해 보고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며, 발아래 길을 살펴보라. 당신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맺음말

비록 현재 사악이 여전히 발악하고 있지만, 겉만 강하고 속은 비었으며 기가 쇠하고 힘이 다했다. 우리는 ‘안을 수련하여 밖을 안정시키다’(정진요지-안을 수련하여 밖을 안정시키다)에 따라 몸

에 정기가 있고 마음에 정념이 있으면, 마음이 발라 온갖 사악을 제압할 수 있다. 동시에 한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은 단지 한두 차례의 전투도 아니고 국지적인 전투도 아니다. 이 마지막 정사(正邪)간의 대결은 우리가 투지를 불태울 것을 필요로 한다. 이 투쟁은 쟁투가 아니라, 수련인이 수련해 낸 지혜, 용기, 능력이자 어깨에 짊어진 책임, 사명, 담당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승리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있는 층차에서의 약간의 얇은 인식이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

한 배를 타고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1998년에 꿈이 아직도 생생하다. 꿈속에서 하늘은 잔뜩 찢푸린 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다. 파도가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수면 위로 작은 배들이 저 멀리 기슭을 향해 돛을 올리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고, 나와 어머니(수련생)도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 처음에는 배가 비교적 빨리 나아갔지만, 나중에는 조금 나아가는 것조차 몹시 힘들고 어려웠다.

기슭이 멀지 않았는데 작은 배는 제자리만 맴돌 뿐이었다.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역시나 진전이 없었다. 다급해진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어머니는 배 위에서 노를 저었으며, 나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배를 밀었다. 작은 배는 힘겹게 조금씩 앞으로

계속 나아가 마침내 기슭에 닿았다.

우리 어머니는 1999년 이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대법제자로, 지금은 여든이 넘으셨다. 2018년 초, 어머니는 아주 큰 병엽 시련을 겪으셨다. 속인들이 말하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 반신에 힘이 없고 제대로 서지 못했으며, 젖가락조차 쥐지 못해 옷을 입기도 힘들어하셨다. 또한 기억 상실과 실어증도 찾아왔다. 속인의 일은 다 기억하면서도 수련과 관련된 기억은 대부분 잃어버리셨다. 글자를 읽거나 쓰지 못하고 말씀도 못하셨으며, 연공 동작과 정념 발하는 것을 잊어버리셨고, 대법서적도 읽지 못하셨다.

갑작스러운 변고 앞에서도 나는 매우 평온했다. 이것이 병이 아니라 구세력 흑수(黑手)의 박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감이 넘쳤던 나는 그것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사부님과 대법이 있고, 수련생들의 도움이 있으니, 우리가 한마음으로 정념을 발하고 안으로 찾으며 심성을 높인다면, 머지않아 박해를 제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직장에 휴가를 냈다. 교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어머니를 우리집으로 모셔 왔다. 소식을 듣고 도와주러 온 수련생들이 많았고, 한 수련생은 매일 오전 우리와 함께 장시간 정념을 발해주겠다고 했다. 수련생들의 힘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3인 팀을 꾸려 계획을 세웠다. 오전에는 정념을 발하고, 오후에는 내가 어머니와 함께 법공부를 하며, 저녁에는 어머니와 교류한 뒤 함께 법공부를 하고 정념을 발하기로 했다.

우리는 어머니가 먼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이 9글

자를 익히게 한 다음, ‘논어(論語)’ 읽는 법을 가르쳐 드렸고, 이를 배우신 후 다시 ‘전법륜(轉法輪)’을 배우게 했다. 어머니의 기억을 돕기 위해, 나는 ‘과륜따과하오, 쩌싼런하오’와 ‘제자가 정념이 족하면 사부는 회천력(回天力)이 있노라’(홍음2-사도은) 등 어머니의 정념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글귀를 큰 글씨로 인쇄해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 두었고, 정념을 발하는 요령을 문자로 쳐서 어머니에게 반복해서 읽어 드렸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바람은 좋았지만 이것은 정사(正邪)간의 대결이었다. 그 치열함은 내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었다.

매일 오전, 중간에 짧은 휴식을 취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세 사람은 거의 내내 정념을 발했다. 나는 평소 결가부좌로 가부좌를 틀고 연공할 때 다리가 많이 아파서, 오랫동안 결가부좌를 하고 정념을 발하는 것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다. 수련생이 꼴꼴이 앉아 우뚝 솟은 산처럼 손을 세우고 악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차마 다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를 악물며 버텼다.

법공부 때는 달랐다. 나조차도 사악이 두려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사악은 광적으로 어머니의 법공부를 교란했다. 처음에 어머니가 글자 하나를 겨우 배우면 사악이 이를 지워버렸고, 어머니는 곧바로 잊어버리셨다. 사악이 다급해졌을 때는 심지어 어머니의 입을 조종해 일부러 글자를 잘못 읽게 하거나, 아예 정반대의 뜻으로 읽게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계속 버텼다. 서서히 어머니는 몇몇 글자를 기억할 수 있게 되셨다.

어머니는 수련하려는 마음이 매우 강하셔서 전력을 다해 협조하셨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으셨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정사간의 대결은 마치 교

착 상태에 접어든 것 같았다. 매일 어머니가 일어나신 후의 상태는 늘 좋지 않았다. 낮 동안 법공부, 발정념, 연공을 거치면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고, 글자를 익히고 법공부를 하는데도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하룻밤을 자고 나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매일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고, 심지어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현상도 나타났다.

나는 조금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언제쯤 끝이 날까?’ 가족들의 압박은 갈수록 커졌고 휴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피로와 불안감을 느꼈고 억지로 버티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버티다 못해 한계에 다다를 무렵, 한 가지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원래 속해 있던 법공부 팀 수련생이 찾아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진상을 알리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다. 나는 먼저 법공부를 한 뒤에 나가게 하려 했다. 내가 어머니께 ‘논어’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릴 때, 어머니가 뜻밖에도 힘들이지 않고 유창하게 읽어 내려가셔서 나는 크게 놀랐다. 내가 ‘전법륜’의 한 페이지(아직 어머니께 가르쳐 드리지 않은 부분)를 펴서 읽게 해 드렸는데, 어머니는 역시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매끄럽게 읽어 내려가셨고,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셨다. 나는 한순간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마음속에서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수련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한 뒤, 나는 사부님의 법상 앞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련생이 어머니를 다시 모셔 왔다. 어머니는 말쑥을 잘 못 하셔서 매우 초조해하시고 감정이 불안정해서 진상을 알리는 효과에 지장을 줄까 우려됐다고 하셨다. 수련생이 돌아

간 후 나는 어머니를 위로해 드렸고 우리는 함께 법공부를 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창하게 법을 읽으시던 어머니는 또다시 글자를 읽지 못하셨다. 이때 나는 마음이 평온했다. 방금 일어났던 신기한 그 장면을 통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가상임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덧 두 달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아직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다. 나는 더 이상 휴가를 낼 수 없었고 함께 정념을 발하던 수련생도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수련생의 한마디가 나를 일깨워 줬다. 수련생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여긴 건 아닐까요?”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수련의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으며, 대법의 요구대로 행하고, 자신을 수련인으로 삼아 고생을 겪으며 업을 소멸하고, 집착을 버리며 심성을 높이는 것뿐이다.

나는 나의 도움이 없으면 어머니가 수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공을 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었던가?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로 이끌어 주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진작 구우주와 함께 해체됐을 터인데, 나 자신의 안전조차 담보할 수 없으면서 어찌 남을 돕는 것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사부님께서서는 이미 그날 어머니가 갑자기 법을 읽게 된 기적을 통해 나를 일깨워 주셨는데, 단지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다. 대법의 위력은 글자도 모르고 혼미하던 노인을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해 유창하게 법을 읽도록 만들 수 있다. 사부님께서서는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시지만, 단지 우리가 반드시 기준에 도달해야

만 한다. 우리가 제고해 올라오기만 한다면 아무리 큰일이라도 사부님께서는 순식간에 제자를 위해 해결해 주시며, 오히려 그 영광과 위덕을 모두 제자에게 주신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은 다 우리 수련의 제고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며, 우리 능력을 벗어난 부분은 사부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가지(加持)해 주신다. 모든 대법제자는 다 사부님께서 보살피고 계신다. 겉보기에는 내가 다른 수련생을 돕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며 사부님께서는 오직 내 그 마음만을 보신다.

법리를 깨달은 후, 나는 가족들과 상의한 뒤 마음을 편히 먹고 어머니를 어머니의 집으로 모셔다드렸다. 이후 8년 동안, 나는 틈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뵈어 글자와 발음을 가르쳐 드렸고, 어머니와 함께 법공부를 하며 연공 동작을 교정해 드렸다. 어머니는 법을 비교적 천천히 읽으셨는데, 어머니가 모든 글자를 똑똑히 보실 수 있게 나도 아주 천천히 읽었다. 틀리게 읽으면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읽었기에 아주 오랫동안 짧은 한 단락밖에 읽지 못했다.

이후 나는 어머니께 법을 베껴 쓰고 법을 외우며 안으로 찾으시도록 격려해 드렸다. 비록 그 과정에서 술한 반복이 있었지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대법제자가 해야 할 일을 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사태 속에서 가족을 잃는 아픔이라는 정의 고비를 넘겼고,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 이겨냈다.

우리는 사부님께서 매 순간 제자들을 진실하고도 확실하게 보살피고 계심을 느꼈다. 가장 힘들 때 사부님께서는 어머니를 격려

하시려 다른 공간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셨고, 어머니가 전자 기기를 잘못 사용해 위험을 초래했을 때 사부님께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원래 우리가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것을 반대하던 가족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보았고, 특히 팬데믹 기간에 어머니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셨음에도 아무런 탈 없이 무사하신 것을 보고는 태도를 바꿔 우리가 대법 수련하는 것을 지지하게 됐다.

이 시련을 겪은 후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80여 세의 연세에도 혼자서 생활을 꾸려가실 수 있게 됐다. 머리 카락도 검어지고 피부도 더 매끄러워져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다. 게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글자를 익히고 쓰며 법을 읽으실 수 있게 됐는데, 다만 말씀하실 때 여전히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예전에는 성미가 불같고 모가 났으며 고집이 세던 어머니가 지금은 성격이 평온하고 상서롭게 변해 잘 참으시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세간의 혈육의 정을 담담히 내려놓으시고 수련 기회의 소중함을 아시게 되어 대법에 대해 더욱 확고해지셨다.

비바람 속에서도 한 배를 타고 나아갔던 이 수련 과정을 거치며, 나는 결가부좌를 하고 정념을 발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마음도 더욱 차분해졌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의지를 단련했으며, 일을 하는 끈기와 인내심이 강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법리에서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법공부의 중요성

글/ 폴란드 서양인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난 몇 년간의 제 수련 경험을 교류하고자 합니다.

일부 수련생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22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유럽 법회에서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2006년부터 매년 유럽 각지에서 열리는 선원 공연의 무대 뒤 업무를 도울 수 있었던 행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현지 수련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력을 다하고 하나의 정체(整體)를 이루어 선원 공연 기간에 사부님의 정법을 돕고 중생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부님을 도와 중생을 구할 이런 기회를 가진 것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몹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주요 협조인으로서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제가 선원을 폴란드에 초청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폴란드 수련생들이 사부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이 가장 중요한 항목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말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아직 전염병 상황이 끝나지 않아 유럽의 다른 나라 극장들은 대부분 방역 제한이 많았지만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선원의 유럽 순회공연 일정에 적지 않은 공백이 생겼고 그 빈 날짜들이 곧 다가오고 있

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가 줄곧 들었던 말은 ‘먼저 대도시에서 극장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였는데 결국에는 가능한 날짜가 모두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말로 선원이 다시 폴란드로 돌아올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폴란드가 어려운 시기에 진정으로 선원을 지원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어 있는 날짜까지 불과 두 달 반밖에 남지 않아 대다수 극장에서는 일정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렵게 일정이 비어 있는 극장 한 곳을 찾았지만 기술 조건이 요구 사항에 맞지 않아 곧 제외됐습니다. 제가 바르샤바 유럽 법회에서 교류했던 내용을 기억하는 수련생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안 됩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선원과 극장 사이에서 거듭 소통하고 노력해 양측 모두가 우리가 정말로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교류하고 싶은 것은 그 시기 제 개인 수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시간이 매우 촉박해 우리는 공연을 불과 46일 앞두고서야 홍보와 티켓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국가의 수련생들은 그 소식을 듣고 공연 한 달 반 전에야 티켓 판매와 홍보를 시작하다니 우리가 정말 미쳤다고들 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제 개인 수련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한 중견기업의 주주 중 한 명으로 회사 업무에 직접 참여해야 했기에 정규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세 아이가 있어 아이들에게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7년 동안 선원 공연이 열리지 않았고 현지 수련

생 중 제가 선원 공연을 가장 잘 알며 경험도 가장 풍부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런 경험과 방식을 다른 수련생들에게 가르쳐 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원 항목의 주요 협조인이었음에도 곧바로 극장 측과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러 직접 나서야 했고, 선원 제작 매니저와 극장 기술팀 사이를 오가며 소통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저는 선원 티켓 부서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체 티켓 판매 시스템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구축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 팀에서 누가 홍보를 협조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자발적으로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술 문제를 처리하고 티켓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저는 홍보 계획과 예산까지 짜야 했고 그 후 온라인 홍보를 포함한 실제 홍보 운영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미국의 마케팅팀과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수련생들도 모두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고 좋은 지역의 주민 우편함에 홍보 책자를 넣었습니다. 사부님의 안내 아래 티켓은 매우 잘 팔렸고 우리는 한 회 공연을 더 추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시기는 일상 업무가 너무 많은 데다 집안일도 돌봐야 했고 거기에 선원 준비까지 겹치면서 법공부를 소홀히 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저는 법공부를 점점 더 적게 했습니다. ‘전법륜(轉法輪)’을 들고 막 법공부를 하려 할 때면 곧바로 아주 중요한 선원 관련 일이 떠올랐습니다. 전날 이미 끝냈어야 했는데 아직 하지 못했고 게다가 조금도 미룰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법공부를 멈추고 그 일들을 처리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괜찮아. 한 달만 더 있으면 선원 폴란드 공연이 끝날 테니 그때 법공부를 보충하면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1월에 마침내 선원이 폴란드에 왔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4개월 뒤 순회공연 일정에 또 한 차례 공백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선원 측에서는 우리가 극장을 몇 곳 더 찾을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은 극장 한 곳을 찾았고 선원과 극장 사이에서 거듭 협상을 벌인 끝에 마침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도 전체적인 협조 외에 기술과 홍보 업무가 모두 제 어깨에 얹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티켓이 빨리 나가지 않아 홍보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의 동부 국경 너머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시작한 바로 그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 초기 며칠 동안 러시아군은 매우 빠르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모두 큰 충격에 빠졌고 아무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선원 공연이 열릴 도시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75km 떨어져 있었고 선원 티켓은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유럽 물류 협조인과 선원 관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들은 폴란드의 티켓 판매 상황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한 장도 팔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공연을 취소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폴란드에 선원이 오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났고, 선원을 다시 모셔 오기 위해 우리는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많은 불가능을 돌파했으니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공연을 취소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게 약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 폴란드 수련생들과 교류해 본 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둘러 주로 참여하고 있는 몇몇 수련생과 교류했습니다. 모두의 생각은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조금의 의심도 없었으며,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서는 안 되며 설령 전쟁이라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상대방에게 답변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티켓을 팔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주일만 주셔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은 답변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3일만 주겠습니다! 우리는 최대 3일까지만 기다릴 수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공연을 취소해야 합니다.”

선원이 공연할 그 도시에는 수련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즉시 더 많은 홍보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티켓이 하나둘씩 팔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공연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실 그 극장은 2015년에 새로 지어진 곳으로 그전까지 그곳에서 매진된 공연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선원은 3회 공연을 모두 매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저는 또다시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고 법공부는 더욱 소홀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선원 공연이 곧 끝날 테니 그때 법공부를 보충하면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월 선원 공연이 끝난 뒤 우리는 폴란드에서 유럽 법회를 열겠다고 신청했고 결국 거의 제가 나서서 이 일을 협조하게 되면서 법공부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폴란드에서 열리는 유럽 법회도 곧 끝날 테니 그때 법공부를 보충하면 돼.’

폴란드 유럽 법회 기간에 우리 가족은 뉴욕 미들타운의 노던 아카데미 예술학교와 관련된 민기 힘든 교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딸 중 한 명이 그곳에 가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지원하려면 14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심사를 통과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또 비자까지 발급받아야 하는지 등은 저를 무척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지만 저는 또 수많은 시간을 들여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유럽 법회 이후 폴란드 에포크타임스는 주요 협조인을 교체해야 했는데 당시 아무도 그 자리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폴란드의 주요 책임자로서 저라도 맡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폴란드 에포크타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직책을 넘겨받은 뒤 저는 어깨의 짐이 또 한층 무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듬해 선원 공연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는 폴란드의 용춤팀도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유럽 전역에서 열린 75회 이상의 퍼레이드와 행사를 지원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을 협조하는 데도 꽤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후 큰아들이 자신도 누나처럼 뉴욕 미들타운의 페이텐(飛天) 대학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저는 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폴란드 현지 법회, 여러 차례의 대규모 단체 회의, 일부 큰 행사와 그 밖의 많은 일들을 모두 제가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의 협조 업무를 나누어 맡을 다른 수련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책임으로 여기며 그렇게 줄곧 해왔습니다.

그 후 막내딸이 자신도 오빠와 언니처럼 뉴욕 미들타운의 노던 아카데미 예술학교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제 동업자의 아들(그 가족은 모두 일반인)도 노던 아카데미 예술학교에 지원해 보기로 결정해 저는 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이 일들을 도왔습니다.

매년 선원이 공연하는 도시와 횡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 수련생들을 이끌어 기술적인 부분을 맡게 하긴 했지만 홍보는 여전히 제가 협조했고 온라인 마케팅도 제가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제 법공부는 거의 없는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불학회에 연락해 이런 매우 좋지 않은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협조인 회의를 열어 모두와 솔직하게 교류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상 법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책임에 짓눌려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수련생을 돕고자 하는 열정도 완전히 잃어버렸고 솔직히 말해서 심지어 수련생을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또 제가 두 가지 결말을 예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구세력이 저를 수련인 가운데서 도태시켜 제가 곧 버티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이 다른 수련생들이 책임을 짊어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수련인으로서 버티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누군가가 각기 다른 책임을 넘겨받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설령 제가 교체돼 새로운 주요 협조인이 생기더라도 다른 수련생들은 더욱 많이 참여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어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입니다.

저를 기쁘게 한 것은 수련생들이 제 말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서로 임무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폴란드 에포크타임스 협조인이라는 직책을 제 어깨에서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수련생이 에포크타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다른 수련생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폴란드 에포크타임스 협조인 일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토메크에게서 이 책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고 사실 당신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그 수련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선원 홍보도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늘 모두가 그 일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던 한 수련생이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피하

면서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선원 홍보를 맡으십시오. 당신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그 역시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앞으로 열릴 폴란드 법회도 그렇게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폴란드 불학회의 다른 수련생들이 우리가 현지 법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준비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또 폴란드 용춤팀 협조도 더는 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러자 정말로 한 수련생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또 다른 몇 가지 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물론 업무를 넘겨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어서 몇 달 동안 이어졌지만 어깨의 짐을 하나씩 덜어낼수록 저는 법공부를 하기가 점점 더 수월해졌습니다.

진정한 돌파는 몇 달 뒤 나흘간 열린 폴란드 전국 법공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법공부 모임에서 저는 제 몸, 특히 제 생각이 정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법공부는 제게 많은 정념과 힘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몇 달 뒤 선원이 올 때까지 저는 매일 ‘전법륜’을 한 강씩 통독했습니다(만약 어느 날 빠뜨렸다면 다음 날 두 강을 읽어 보충했습니다). 저는 제 정념이 갈수록 강해짐을 느꼈고 수련생을 도우려는 열정도 되찾았으며, 수련생들을 만나고 함께 교류하며 일을 하는 것이 모두 제게 큰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련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 뒤 저는 안으로 찾아 자신의 집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여러 해 동안 사실 제게 어떤 항목이든 제 손으로 직접 하고 혼자서 협조하려는 집착심이 있었다

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수련생들이 그 일을 할 때 저만큼 잘하지 못할까 봐 의심했고, 심지어는 그들이 저보다 더 잘 할까 봐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 인식으로는 이 모든 생각이 제 질투심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 안의 이 질투심을 발견했을 때 저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수련에서 거의 한 번 크게 넘어진 뒤에야 깊이 숨겨져 있던 이 한 층의 질투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제거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늘 제 생각을 주의 깊게 살폈고 다시 이런 생각이 나타나면 재빨리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유럽 법회 원고)

정법이 최후에 이르렀는데 기회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

글/ 중국 대법제자 중생(重生)

[명혜망] 정법시기 대법제자인 우리는 사부님을 따라 27년의 정법의 길을 걸어왔다. 이치대로라면 이미 성숙했기에 사부님께서 더는 우리를 위해 마음 쓰시게 해서는 안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히려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더욱 걱정하시게 만들었다. 특히 올해 들어 중국에서는 여러 대법제자가 끊임없이 남

치, 교란, 구류, 가택수색, 감금, 징역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월 창춘시에서 파룬궁수련생이 최소 26명 납치됐다.

◎ 2026년 8월 19일, 산시(山西)성 타이위안시 구역과 편시현에서 집중적인 체포 사건이 발생했다. 타이위안시 싱화링구에서는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경찰과 함께 16명을 불법 체포했는데, 그중 5명은 파룬궁수련생이고 11명은 파룬궁수련생 가족이었다. 체포된 가족은 24시간 이후 모두 풀려났다.

◎ 2026년 8월 5일부터 2026년 9월 5일까지, 라이수이에서 파룬궁수련생 9명과 파룬궁수련생 가족 2명이 납치, 가택수색, 감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각각 장동성(張東升)과 류진잉(劉金英) 부부, 왕원링(王文玲), 천청란(陳成蘭), 장창성(張長生), 장젠루(張建茹), 리슈친(李秀芹), 리춘후이(李春暉), 장슈치(張秀啟) 등 9명과, 수련하지 않는 장슈치의 딸과 사위다.

◎ 허베이성 스자좡시에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단 11일 동안 45명을 교란하고 3명을 불법 구류했으며, 2명을 불법 감금했고 1명은 행방이 묘연했다. 그중 가오청구가 가장 심각해 최소 17명을 교란했다.

◎ 허베이성 한단시 린장현 파룬궁수련생들[쑹전하이(宋振海), 왕추편(王秋芬), 류싱즈(劉杏芝), 왕쥘샹(王俊香), 런쥘샤(任俊霞), 류메이화(劉梅花), 루이친(瑞琴), 단(段) 씨(단머우메이(段某梅))]은 9월 12일 밤 8시 10분쯤, 쑹전하이가 운영하는 가게 2층에서 막 법공부를 시작했다. 몇 분 이후 1층 상점 문이 덜 닫

힌 틈을 타 난동광진 파출소 경찰 두 명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2층으로 올라와 현장에 있던 수련생들의 사진을 찍고 심문했다.

◎ 2026년 8월부터 9월 17일까지 가오이현 각 파출소, 주민센터, 주민위원회, 촌위원회가 파룬궁수련생을 끊임없이 교란해 최소 17명의 수련생이 자택에서 교란당했다. 일부 수련생은 집으로 여러 차례 찾아온 이들에게 교란당했는데, 경찰이나 주민센터 직원이 몰래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녹화했다. 어떤 이들은 집에 인터넷, 컴퓨터, 프린터가 있는지, 또 여전히 연공을 하는지 심문했다. 어떤 이들은 ‘수련생을 걱정한다’는 핑계를 대며 생활 상황을 캐물었다. 최근 허베이성 파룬궁수련생들이 현지 파출소로부터 대규모로 교란당하고 있다...

명혜망 2026년 9월 20일 중국 종합소식에서는 단 한 번에 중국 수련생이 교란당한 소식을 20여 건이나 보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런 사례는 매우 많다.

생생한 현실 속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런 일들을 보며 나는 정말 우리 모든 대법제자, 특히 붙잡히고 교란당한 수련생은 마땅히 꼼꼼히 안으로 찾아보야 한다고 느꼈다. 자신에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어떤 것들이 남아 이토록 심각하고 큰 누락을 남겼고, 사악이 이를 이용해 표면적으로 험악한 형세를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대법과 대법제자에게 이토록 큰 죄를 짓게 했는지 찾아보야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으로 찾아보니 나에게 다음과 같이 아직 내려놓지 못한 사람 마음과 집착이 남아있음을 발견했다.

1. 근본적인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다.
2. 시간에 집착한다.
3. 나이에 집착한다.
4. 두려운 마음이 있어 마지막 길을 그저 평온하게 잘 걸어가려고만 한다.
5. 처음처럼 수련하지 못한다.
6. 사부님과 법을 100% 믿지 못한다.
7. 협력할 때 확고부동한 정체(整體,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다.
8. 원망심, 환희심, 질투심 등 여러 사람 마음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겉보기에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사(下士)’와 같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노력해 남은 이런 사람 마음과 집착을 철저히 닦아 없애야 한다. 법 암기와 법 필사를 견지하고, 진지하게 법공부하며, 정념을 잘 발하고 사람 구하는 일을 잘 해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환골탈태해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의 작은 체득이니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그들은 왜 파룬궁수련자를 지지하는가? 5대 핵심 고려사항과 직접적인 접촉

글/ 우징(宇澄)

[명혜망] “저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0.5마일 떨어진 미국 의회에서 양당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항상 유지해 왔으며, 특히 파룬궁수련자의 신앙 실천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주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패트 라이언(Patrick Kevin Ryan)이 2026년 9월 24일, 파룬궁수련자가 주최한 한 공개 집회에서 강조한 요점이다. 이 집회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사이에 있는 해군기념관 앞에서 9월 트럼프-시진핑 회담(23일~25일) 기간에 열렸다.

31년 전 파룬궁이 미국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 꽃을 피운 이후, 특히 1999년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전면적으로 시작한 이래로, 미국의 양대 정당(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점점 더 많은 의원이 파룬궁수련자의 신앙 실천을 지지하고 있다. 라이언 의원이 말한 바와 같다. “미국 국민은 파룬궁수련자들과 함께 서 있으며, 신앙과 자유의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을 확고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1. 5대 핵심 고려사항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각계가 보편적으로 파룬궁수련자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것은 주로 다음 다섯 가지 핵심 고려사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핵심적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 수호(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미국의 헌정 이념에서 ‘신앙의 자유’는 박탈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이자 최우선 자유로 간주된다. 워싱턴의 국회의원 및 종교 자유 기구(예: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는 오랫동안 전 세계 종교의 자유 증진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2) 가장 많이 박해받는 단체 중 하나

수년간의 국제 인권 보고서와 USCIRF의 기록에 따르면, 1999년 이래 파룬궁수련자는 중국 본토에서 가장 가혹하고 대규모적이며 체계적인 탄압과 감금을 당한 신앙 단체 중 하나다. 따라서 파룬궁에 관심을 두고 성원하는 것은 전 세계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됐다.

3) 잔혹한 인권 침해와 ‘장기적출’ 범죄 반대

게다가 워싱턴 정계와 인권 단체는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체계적이고 국가 권력이 개입된 생체 장기적출 혐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강제 장기적출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극도로 잔인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반인륜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4) ‘진선인’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

많은 종교계 인사(기독교 목사 및 기타 신앙 대표 포함), 인권 옹호자, 종교 및 신앙 자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파룬궁이 ‘진선인(眞·善·忍)’을 수련 원칙으로 삼고 도덕적 승화와 평화롭고 이성적인 태도를 주창한다는 것을 보아왔다.

27년 동안, 가혹하고 불법적인 체포, 감금, 혹독한 고문 앞에서도 파룬궁수련자들은 평화롭고 이성적이며 진상을 알리는 방식으

로 박해 반대를 전개해 왔다. 이는 중공이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을 통해 추진한 ‘파룬궁 소멸’,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 내며 육체를 소멸하라’는 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양심과 선념을 지닌 많은 국제 인사가 당연히 파룬궁수련자를 성원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5) 민주주의와 자유 가치 고수

워싱턴의 인권 단체와 정계 인사들은 보편적으로,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경제, 무역 또는 지정학적 이익 때문에 기본 인권을 타협하거나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파룬궁을 성원하는 것은 특정 단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법치, 존엄, 기본 원칙을 수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2. 워싱턴 각계의 파룬궁수련자 가치관과 언행에 대한 공감

최근 미국의 국회의원, 인권 옹호자 및 오랫동안 종교 자유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이 각자의 접촉과 관찰을 바탕으로 자신이 아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터뷰에 응한 몇 사람의 배경은 다르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파룬궁수련자는 모두 선량하고 진실하며 평화롭고 타인을 배려하며 커뮤니티에 봉사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줬다.

• 뉴욕주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팻 라이언이 말했다.

파룬궁수련자는 “우리 커뮤니티에 계속 봉사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진실, 인내, 자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 미국인들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입니다.” “그들

은 우리 커뮤니티와 우리나라를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라이언 하원의원은 또 자신의 선거구 내에 파룬궁수련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매우 좋아한다고 언급했다. “그들이 만드는 크루아상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자 종교자유센터 소장인 니나 셰이(Nina Shea)가 밝혔다.

그녀가 만난 파룬궁수련자들은 “매우 선량하고 타인을 깊이 배려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박해 경험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파룬궁수련자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무용 공연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언급했다. “제가 그들을 정말 존경하는 점은, 피해자로서의 경험에만 집중하지 않고 중국과 중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셰이는 여러 차례 선원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다. 그녀는 자신이 “그 공연들을 매우 좋아하며”, 그 속에서 “중국공산당 출현 이전의 중국 전통, 문화, 예술”을 알아보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 종교자유연구소 회장 데이비드 트림블(David K. Trimble)이 말했다.

“직접 접촉하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저는 그들이 매우 진실하고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선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삶의 방식에 융합시키고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 위구르족 인권 옹호자 루샨 아바스(Rushan Abbas)는 수년간 여러 박해받는 단체와 접촉해 왔으며, 그중에는 파룬궁수련자도 포함돼 있다.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매우 진실하고 매우 정직하며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신뢰합니다.”

‘세계는 진선인이 필요하다’라는 현수막을 보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파룬궁수련자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들에 대해 알게 될수록, 저는 그들이 받는 관심이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위구르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파룬궁, 티베트인, 남몽골인, 홍콩인도 언급한다며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하고, 서로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타인과 자신, 친한 이와 원수를 평등하게 대함’에 관해

글/ 첨평(詹平)

[명혜망] 《서유기(西遊記)》 제53회에는 이런 두 구절이 있다. “덕행(德行)은 8백을 닦아야 하고, 음공(陰功)은 모름지기 3천을 쌓아야 하네. 물아(物我)와 친원(親冤)을 균평(均平)하게 대해야 비로소 서천(西天)의 본래 소원에 부합하리라.” 오승은(吳承恩, 약 1500~1582년)이 쓴 이 두 구절에서 ‘덕행’은 도덕적 수양을 뜻하고, ‘음공’은 남모르게 베푸는 선행을 뜻하며, ‘균평’은 평등하게 대함을 뜻한다. 또한 ‘물아’는 외물(外物)과 자아를 뜻하고, ‘친원’은 친한 이와 원수를 뜻한다.

어떤 이는 이 두 구절이 《서유기》 수행 경로의 핵심을 개괄하고 있다고 말한다. 본 글에서는 물질적 수요의 관점에서 ‘물아와 친원을 평등하게 대함(均平物我與親冤)’이라는 점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현대인들은 타인과 자신, 친한 이와 원수를 평등하게 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중 주관적인 느낌, 정서, 감정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 사회의 법률과 법규는 눈이 부실 정도로 복잡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궁극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대부분 자아와 욕망을 중심으로 구동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타인, 자신, 친한 이, 원수를 ‘균평’하게 대한다는 것은 거의 천방야담(天方夜譚, 아라비안나이트)에 가깝다. 그렇다면 전통문화에서는 사람됨과 사회 상태를 어떻게 가늠했을까?

《논어(論語)·학이편(學而篇)》 기록에 따르면 자공(子貢)이 일찍이 “가난하고 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고 귀해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공자(孔子)는 “괜찮다. 하지만 가난하고 천해도 도(道)를 즐기고, 부유하고 귀해도 예(禮)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대답했다. 다시 말해 자공은 가난하고 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고 귀해도 교만하지 않으면 이미 아주 훌륭하다고 여겼지만, 공자는 자공이 말한 사람됨의 기준이 안 될 것은 없으나 가난하고 천하면서도 수신(修身)을 즐기고, 부유하고 귀하면서도 천지간의 질서를 깎듯이 지키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빈천을 막론하고 모두 천(天), 지(地), 인(人) 사이의 관계를 수호하고 천지간의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며 수신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사람됨의 요령이라는 뜻이다.

중국 ‘(현대) 4대 사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첸무(錢穆, 1895~1990)는 《중국역사연구법(中國歷史研究法)》에서 중국 전통의 경제관은 ‘인문주의’(혹은 ‘도덕주의’, ‘예의주의’라고도 함)를 입장으로 삼지, ‘욕망’을 입장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람의 갖가지 욕망과 물질 경제는 모두 ‘인문 이상(理想)’과 ‘도덕 예의’의 인도와 절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수준’의 필수적인 경제는 인생에 대해 그 긍정적인 가치가 있지만, 불필요한 ‘초수준’ 경제는 인생에 결코 긍정적인 가치가 없으며, 심지어 부작용과 반가치(反價値)를 낳아 사람의 욕망을 조장한다. 만약 물질 경제를 욕망에 따르게 한다면 인생을 무한히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불균형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곧 인생의 고통과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언급할 때는 종종 ‘제절근도(制節謹度, 절제하고 한도를 지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경제는 단지 인생을 보조하는 데 쓰이는 것일 뿐, 인생을 지배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만 경제 발전이 한도가 있고 절제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중국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이상적인 수준은 주로 ‘평(平)’, 즉 욕망의 평식(平息, 가라앉음)과 평정에 있다. 욕망이 가라앉고 평정돼야만 비로소 ‘천하태평(天下太平)’하고 국태민안(國泰民安)할 수 있다. 청나라 이여진(李汝珍, 약 1763년~1830년)의 《경화연(鏡花緣)》에 나오는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않는 군자국(君子國)’(《산해경(山海經)》에서 유래)은 아마도 이러한 ‘태평’한 정경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당오(唐敖)와 다구공(多九公)이 한가로이 군자국을 유람했다. 변화가에 이르러 그들은 물건을 사는 자가 파는 자를 ‘검양’한다고 여겨 “물건은 좋은데 값이 싸다”라며 마음이 불안해 값을 더 쳐주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 반면 물건을 파는 자는 사는 자가 ‘극기(克己)’한다며 “물건은 적은데 값이 비싸다”라며 한사코 값을 올리려 하지 않았다. 길가로 두 노인이 지나가다가 공정하게 평가해 가격을 정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거래가 성사됐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사는 쪽은 흥정하며 ‘물건은 적은데 값이 비싸다’ 같은 말을 하고 파는 쪽은 ‘물건은 좋은데 값이 싸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두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러나 군자국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정반대여서 전혀 다른 풍조를 보였다. 당오와 다구공은 길을 가면서 군자국에서 ‘밭을 가는 자는 밭 두둑을 양보하고, 길을 가는 자는 길을 양보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선비와 서민 등 부귀빈천을 막론하고 행동거지와 언행이 너

그럽고 예의 바르지 않은 자가 없었다. 군자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매우 평범하게 여겼다. 당오와 다구공은 ‘군자국’이라는 국명과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는다(好讓不爭)’라는 네 글자가 십중팔구 이웃 나라에서 부여한 평가이자 찬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명혜창(明慧之窗) 웹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제목은 ‘고집 센 시어머니의 좋은 며느리’이다. 중국에 사는 위안위안(袁媛, 가명)에게는 성질이 무척 고집스러운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매우 상대하기 힘들었다. 이 시어머니를 잘 아는 사람들은 모두 시어머니가 종종 “나는 네가 안 무섭다. 목이 떨어져도 목덜미로 들이받아서라도 너를 이겨 먹을 거다!”라는 말을 즐겨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가 화를 낼 때는 왕왕 말을 가리지 않고 어떤 심한 말도 다 내뱉었으며, 남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온 가족이 장기간 함께 먹고 자며 생활했으니, 며느리의 나날이 얼마나 억눌리고 견디기 힘들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시어머니는 어딜 가나 자기 며느리가 좋다고 말하며, 위안위안을 ‘얻기 힘든 좋은 며느리’라고 칭찬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알고 보니 며느리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통해 자신에게 ‘평화를 유지하고 계산적인 마음을 내려놓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번은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며느리에게 “너 진짜 멍청하구나! 너 진짜 멍청해!”라며 욕을 퍼부었다. 두 번째 욕을 할 때 며느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위안위안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마치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듯 얼굴이

단번에 활짝 펴지더니 낮은 목소리로 “됐다, 내가 하마!”라고 말했다. 그 순간, 위안위안은 자신과 시어머니 사이에 뭔가 단번에 산산조각이 나면서 자신과 시어머니 사이의 묵은 은원이 모두 풀렸다고 느꼈다.

우연의 일치는 또 있다. 서양에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神國論)》이라는 책을 썼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에서 로마의 쇠락은 도덕적 쇠퇴 때문이며, 기독교 교리는 로마 쇠락의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독교인들이 귀속되는 곳은 로마 제국이나 지상의 어떤 성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다.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전자 시민들의 공통점은 자신에 대한 사랑에 있고 후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로 인해 생겨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결합해 있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은 서양 문화에서도 사람들이 ‘욕망’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영혼에 ‘평안’이 없다고 여겼음을 보여준다. 오직 자아와 외물, 친한 자와 원수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승은이 쓴 ‘물아와 친원을 평등하게 대함’은 동서양 문화에서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태평성대를 창조하며 나아가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즉 동양의 성불성도, 서양의 하나님에게로 회귀함)에 이르는 올바른 경로이다.

이에 반해 중국공산당(중공)은 유물론과 무신론을 선전하고 ‘경

제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라고 선전한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절대적 평균주의’라는 구호는 온갖 극단적인 방식을 초래해 소름 끼치는 빈부격차를 만들어냈다. 반면 ‘빈부를 균등하게 한다(均貧富)’라는 구호는 사람의 불로소득을 유도하고 물질적 욕망과 폭력적 성향을 증가시켜 사회 전체를 ‘물질 숭배주의’, ‘실리 추구’라는 기로로 이끌었다. 《당문화 해체(解體黨文化)》라는 책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논술이 있으니, 본 글에서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다.

쑨원(孫中山)은 일찍이 1921년에 ‘심물합일론(心物合一論)’(중성일원론이라고도 함)을 제기해 정신과 물질의 통일을 주장했다. 즉 유물론도 아니고 유심론도 아니며, ‘심(心)’으로써 정신을 지칭해 정신과 물질 두 가지가 공존하고 상호작용함을 강조했다. 이는 중화 전통문화의 천인합일(天人合一)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도덕을 배제한 채 물질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여기게 되고, 욕망이 끝없이 팽창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만방자해지고 도덕성이 상실되는 길로 접어들게 될 뿐이다. 반면 정신이 완전히 결여된 물질은 오직 ‘걸어 다니는 송장(行屍走肉)’으로밖에 형용할 수 없으니, 그것은 태평성대의 정경이 아니다.

그러므로 돌고 돌아 다시 《서유기》로 돌아와서 “물아와 친원을 평등하게 대해야 비로소 서천의 본래 소원에 부합하리라”라는 이 구절을 다시 보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고 옛사람들의 오성(悟性)이 남다르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지 않는가?



▲ 9월19일, 유럽 31개국에서 온 1천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두 차례의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첫 번째 퍼레이드는 정오에 프라하성에서 출발해, 관광객들로 붐비는 거리를 따라 역사 지구를 지나 구시가 광장에 도착했다. 두 번째 퍼레이드는 구시가 광장에서 출발해, 프라하 구시가지를 관통한 뒤 다시 구시가 광장으로 돌아왔다. 많은 현지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켜보았고 파룬궁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박해 상황을 알아본 후 서명하며 파룬궁수련자들의 반(反)박해 활동에 지지를 표명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85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715만 7216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